

● 2000.4.18 소주방 화재

18일 19:36분께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5동의 한 소주방에서 불이 나 주인 강옥한(60, 여)과 친구 이영자(61, 여)씨 2명이 숨지고, 김모(60, 여) 등 3명이 중화상을 입었으며, 내부 107평 대부분을 태운 후 20여분만에 진화되었다.

이 가게 손님 김모(19)양은 “친구 4명과 함께 생일파티를 하던 중 가게 종업원이 쟁반 위에 500cc 호프잔 7개를 3층으로 쌓고 주위에 눈 스프레이를 뿌린 뒤 불을 붙이고 삼패인을 따랐는데 갑자기 불길기 천장으로 치솟았다”고 말했다.

경찰은 가게 종업원 최모(23)씨가 속칭 “불쇼”를 하기 위해 호프잔 안에 라이터용 액체가스를 붓고 불을 붙이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 2000.5.5 상가 화재

5일 23:12분께 서울특별시 종로구 장사동 세운상가 옆 전업사 골목에서 불이 나 아남전기 등 40여개의 점포를 태웠다.

불이 나자 38대의 소방차가 출동해 진화작업에 나섰으나 불이 난 곳이 소방차가 들어갈 수 없는 좁은 골목에 위치해 있어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불이 난 곳은 전열기구와 사무용 통신장비 부품 등을 판매하는 점포 100여개가 몰려 있다.

경찰은 “갑자기 골목길 안쪽에서 ‘펑펑’하는 소리가 들리면서 시커먼 연기가 치솟았다”는 인근 주민들의 말에 따라 전기합선에 의해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 2000.5.8 공장 화재

8일 16:30분께 부산광역시 사상구 감전1동 신발부품 제조업체인 우영기업사에서 신발부품 원단을 압착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정전기로 불꽃이 튀어 화재가 발생하였다.

이 불로 공장장 박모(43)씨와 직원 서모(60)씨가 연기에 질식돼 인근 병원에서 치료중이며 신발부품 원단 등을 태워 1천5백만원 상당의 피해를 내고 30여분만에 진화됐다.

● 2000.5.9 학교 화재

9일 03:00분께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3동 대구산업정보대 학생회관 지하 1층 동아리사무실(60평)에서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불이 나 15평 가량을 태워 15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를 냈다.

● 2000.6.6 창고 화재

6일 18:00분께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덕은동 대명 화학약품 옥외 야적장에서 원인미상의 화재·

폭발사고가 발생하였다.

옥외 야적장에는 글리세린, 바세린 등 화학약품 약 48,000kg이 적재(드럼통)되어 있었으나 이중 일부를 태운 후, 3시간만에 진화되었다.

이날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대명창고의 화공약품 드럼통이 잇따라 폭발하고 스펀지가 타면서 검은 연기와 유독가스가 덕은동 일대에 반경 1km 이상 퍼졌으며, 재산피해는 약 5,000만원(소방서 추정)이 발생하였다.

또 경찰이 인근 자유로 난지검문소 주변의 통행을 제한하고 차량들이 불을 구경하기 위해 서행하는 바람에 자유로~공항동~고양 일산구간에서 4시간여 동안 심한 교통체증이 빚어졌다.

불이 나자 소방차 50여대와 소방관, 경찰 100여명이 동원돼 진화작업에 나섰다. 화공약품이 잇따라 폭발하고 유독가스가 퍼지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었다.

경찰은 이날 공장 안에 사람이 없었다는 회사 관계자들의 말에 따라 누적으로 인해 불이 난 것이 아닌가 보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 중이다.

● 2000.5.9 위스키창고 화재

9일 버본 위스키 산지로 유명한 미국 켈터키주의 한 대형 증류창고에서 불이 나 10일 아침까지 '와일드 터키' 위스키 55gal 짜리 1만 7,000통(약 535만병 분량)이상이 소실됐다. 또 타지 않은 버본 위스키(알콜도수 약 50)가 켈터키 강으로 흘러 들어가 마을의 수도 공급이 중단되고 8,000여 학교와 기업이 문을 닫는 사태가 벌어졌다.

소실된 창고에는 '와일드 터키'가 수년 된 것에서부터 15년 숙성시킨 것까지 저장되어 있었다. 목격자들은 불이 나자 곳곳에서 술병 터지는 소리가 총소리처럼 울려 퍼졌고, 술에 옮겨 붙으면서

불이 매우 빠르게 번져 나갔다고 말했다. 화재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증류소가 전소된 이외에 별다른 인명피해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 2000.5.13 폭죽창고 폭발화재

네덜란드 동부 공업도시 에스헤데의 한 폭죽창고에서 13일 오후 4시(현지시간)께 대형 폭발사고가 발생, 최소 20명이 숨지고 541여명이 부상했다.

창고에서 발생한 화재로 100여톤의 폭죽이 연쇄 폭발하면서 에스헤데 도심이 뒤흔들렸다. 창고 반경 500m 지역은 건물 2,000여동과 자동차 등이 폭발로 내려앉거나 찌그러지고 회색 잿더미로 뒤덮여 마치 폭격 당한 전쟁터를 방불케 했다.

목격자들에 따르면 폭발과 함께 부서진 콘크리트 조각과 유리가 사방으로 튀었으며 곳곳에서 화재가 발생, 수 km 밖에서도 검은 연기가 보였다.

화재를 진압하던 소방대원 3명을 포함, 최소 20명이 숨졌으며 대피하지 못한 주민 상당수가 건물 잔해 아래 매몰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고가 발생하자 비이트릭스 여왕과 빔 폭총리가 지역 관리와 함께 현장을 방문, 구조작업을 독려하는 등 네덜란드는 전 국가적 비상체제에 돌입했다. 인접 독일에서도 소방차와 구급차를 급파하고 부상자들을 인근 병원으로 후송했고, 현지 공군기지에서 부상자들을 치료하고 있다고 언론은 전했다.

사고 현장은 거대한 분화구 형태로 지반이 내려앉았고, 주변은 건물 잔해와 각종 파편들로 완전히 뒤덮여 있는 혼란스런 상황 속에 구조작업이 진행 중이어서 사상자는 더 늘어날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소방 관계자들은 폭발 후 창고 인근 흐롤슈 맥주공장 일부가 화염에 휩싸였으며 불길은 강한 바람을 타고 인근 대형 건물로 확산될 위험이

있다고 경고했다.

사고가 발생한 창고는 폭죽 수입 및 판매회사인 S.E.사 소유이다. 이 회사는 주로 중국에서 폭죽을 수입해 대중 음악회나 축제 등의 행사 때 공급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아직 정확한 폭발 원인은 밝혀내지 못했으며, 단지 예년에 비해 덥고 건조한 날씨가 계속 되던 중에 창고 내 어디선가 발생한 불티가 폭죽에 옮겨 붙어 일어난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경찰은 폭죽창고가 주택가에 자리잡게 된 경위를 조사중인 가운데 잔 만스 시장은 이 창고가 폭죽 저장 허가를 받았다고 확인했으나 왜 주거밀집 지역에 자리잡고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못했다.

한편, 스페인 동부 발레시아주 라펠코페르의 한 폭죽공장에서 15일 폭발사고가 발생, 5명이 숨지고 7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현지 구조 관계자들이 전했다.

네덜란드 폭죽창고 폭발사고 이후 이틀만에 발생한 이번 사고는 이날 오후 4시(현지시간) 발생했다.

사고 직후 몇 채의 건물로 이뤄진 공장 전체가 화염에 휩싸였으며, 하늘 높이 치솟은 불꽃은 근처 숲으로까지 퍼져 나갔다고 목격자들이 전했다.

정확한 사고 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고 있으며, 근로자 2명의 생사가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 공장에서는 지난 1991년에도 똑같은 사고가 발생, 1명이 숨졌었다.

● 2000.5.21 영화관 폭발사고

필리핀 수도 마닐라의 대형 쇼핑몰 내 영화관에서 21일 오후 4시 15분(현지시간) 폭발사고가 발생, 최소 1명이 숨지고, 12명이 부상했다고 현지

관리들이 밝혔다.

다이너마이트나 흑색 폭약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이날 폭발사고는 필리핀에서 가장 큰 쇼핑몰인 SM 메기말 3층 영화관의 여자 화장실 앞에서 발생했다고 경찰은 발표했다. 이로 인해 젊은 남자 1명이 사망하고 영화관 직원 등 12명이 상처를 입었으며, 건물 천장 일부가 무너지고 영화관 매표창구 유리창이 부서져 사방으로 흩어졌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 2000.6.10 화학공장 폭발사고

10일 18:00시경 일본 군마(群馬)현 오지마마치(尾島町)의 화학공장·닛신(日進)화공 오지마공장에서 폭발사고가 발생, 공장 종업원 2명이 사망하고, 19명이 중경상을 입었다.

사고 후 검은 연기가 계속 치솟자 소방당국은 공장 부근 주민들에게 대피령을 내렸으나 유독가스는 흘러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폭발과 함께 오지마마치의 200여 가구에 전기가 나가 한동안 큰 소동을 빚었다.

당국은 오지마마치 사무소에 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닛신화공은 1953년에 설립, 염산 등 화학제품을 제조하고 있으며, 종업원은 20여명에 불과하나 1999년 9월 결산 매출고가 33억엔에 이르는 등 견실한 회사인 것으로 알려졌다. ☞

情報資料 案内

■ 우리 협회 위험관리센터에서는
위험관리에 관한 국내·외의 최신
자료를 수집, 정리하여 정보회원 및
유관기관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용문의 ☎780-8111 (조사분석팀)]

자료 형태	코드	자료 형태	코드
도 서	BB	팸플렛, 카탈로그 등	PP
정기간행물 기사	JJ	시청각 자료	VV
보고서(논문집 포함)	RR	복사 자료	CC
규격·코드	SS	신문 기사	NN

■ 주요 신착자료 (2000.4. 1~5.31)

자 료 명	잡 지 명	출판연월	페이지	등록번호
FREM 기법에 의한 건물화재 위험성 평가	안전전문기관회보	2000.00	12 - 13	JJ030749
Trade-Offs Between Automatic Sprinklers and Manual Fire Suppression Facilities	Fire Engineers Journal	2000.01	30 - 34	JJ030881
建築防火의 밀레니엄	火 災	2000.02	01 - 04	JJ030637
最近 火災의 第1着火物에 대하여	防 災 ニュース	2000.02	20 - 26	JJ030663
百貨店の 火災事例에 있어서 防火管理	安全과 管理	2000.02	26 - 27	JJ030727
Oil tanks blaze rages out of control for thirty-six hours	Fire International	2000.03	09 - 10	JJ030675
發酵劑에 의한 단백질 消火藥劑의 處理에 관한 研究	フ ェ ス ク	2000.03	20 - 24	JJ030703
물손실방지형 스프링클러의 연구 개발	소방기술정보	2000.03	13 - 21	JJ030713
비닐질연전선 절연물의 동시열시차 분석에 관한 연구	전 기 안 전	2000.03	48 - 63	JJ030717
BLEVE로 인한 과압 예측에 관한 연구	한국가스학회지	2000.03	69 - 76	JJ030738
Transformers: New Tools for Risk Transfer	Risk Management	2000.03	10 - 14	JJ030739
Fire breaks out in a fabric storage facility	Face Au Risque	2000.03	39 - 42	JJ030816
테레프탈산의 분진 폭발특성에 관한 연구	산업안전학회지	2000.03	121-125	JJ030831
TRiMS 프로그램 (Total Risk Management System)	가 스 안 전	2000.04	72 - 77	JJ030755
화학공장의 위험성 평가를 위한 인간 신뢰도 분석 방법 및 지원시스템 개발	화학공학의 이론과 응용	2000.04	433-436	JJ030805
보가 있는 공간에서의 화재시 스프링클러 반응시간에 관한 연구	추계학술논문집	2000.04	113-119	JJ030870
Water Mist 消火設備의 技術的 進歩	近代 消 防	2000.05	96 - 101	JJ030825
감전·화재사고 취약장소의 전기설비 시설 지침	전 기 저 널	2000.05	34 - 46	JJ030909
위험성 평가에 의한 검사(RBI)의 중요성 및 향후 전망 조명	안 전 보 건	2000.05	30 - 34	JJ030910

위험관리정보 제108호

발행일 : 2000. 6/7(격월간)
 발행처 : 한국화재보험협회 위험관리센터
 주 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35-4
 전 화 : (02)780-8111 FAX:(02)783-4094

홈페이지 : <http://www.kfpa.or.kr>

인쇄처 : (주)이환기획인쇄 / 전화 : (02)2276-1116